

이상원 | 외환분석부장 (제 7195)

- 주요 뉴스: 트럼프 대통령, 관세 관련 강경 입장 유지. 개별국 협상도 불확실성 지속
 - 연준 주요 인사(시카고 연은 총재), 관세로 인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거론
 - 미국 재정수지, 관세 수입(\$266억) 증가 속 6월 흑자(\$270억) 기록
 - 독일 연방의회,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(~29년 법인세 감면) 승인
- 국제금융시장: 트럼프 관세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·채권 동반 약세

미국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강세[+0.2%], 미국 금리 상승[+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은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3일 만에 하락
 유로 Stoxx600은 미국의 對EU 관세 서한에 대한 경계감 속에 1.0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, 내외금리차 확대 등을 반영하면서 對엔화 중심으로 강세
 유로화 가치는 0.1% 하락, 엔화 가치는 0.8% 하락
 - 금리: 미국(10년물)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감소로 4.4% 상회
 독일은 네덜란드 연기금의 국채 매도(€1,250억) 발표 이후 상승세 지속

※ 뉴욕 1M NDF 증가 1,376.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,379.2원, 0.3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7/11일	7/10일	전일대비			7/11일	7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259.8	6,280.5	-0.3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1%	4.35%	+6bp
	유럽	547.34	552.93	-1.01%		독일	2.73%	2.71%	+2bp
	중국	3,510.2	3,509.7	+0.01%		영국	4.62%	4.60%	+2bp
	일본	39,570	39,646	-0.19%	CDS 5y	한국	26bp	25bp	+1bp
	한국	3,175.8	3,183.2	-0.23%		중국	47bp	46bp	+1bp
환율	달러지수	97.85	97.65	+0.21%	위험 지표	EMBI+	358	359	-1bp
	유로화	1.1689	1.1701	-0.10%		VIX	16.40	15.78	3.93%
	엔화	147.43	146.26	-0.79%		WTI유	68.45	66.57	2.82%
	위안화	7.1701	7.1782	+0.11%	원자재	구리	556.2	554.8	0.25%
	원화	1,375.4	1,370.0	-0.39%		금	3,355.6	3,324.1	0.9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 대통령, 관세 관련 강경 입장 유지. 개별국 협상도 높은 불확실성 지속

- 트럼프 대통령, 강경 대응(협상 결렬 시 보복)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브라질 (7.9일 50% 관세율 통보) 룰라 대통령과 “언젠가 통화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”고 발언. 캐나다(7.9일 35%)에 대해서는 “서한이 잘 도착한 것 같다”고 언급
- EU 집행위원회 길 무역담당 대변인, 미국과의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 철강·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(€215억 규모) 유예 가능성 시사. Reuters는 상황 예측이 어렵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
-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ASEAN 외교장관회의(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) 일정 중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첫 회동 후,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대 받았으며 양측이 모두 원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
 - 중국 외교부, 양국은 금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실용적이며 건설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면서, 도출한 합의를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, 관세로 인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거론

-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, 최근 발표되고 있는 관세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이러한 여건은 연준으로 하여금 더 명확한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관망 자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

■ 미국 재정수지, 관세 수입 증가 속 6월 흑자 기록

- 재무부, 6월 재정수지가 \$270.1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. 이중 관세 수입 customs duties은 \$266.3억으로 3개월 연속 \$100억대(4월 \$156.3억, 5월 \$221.7억). 순이자_{net interest}는 \$843.5억으로, 순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_{social security}(\$1,412.4억)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. '25회계연도 누적 적자는 \$1.34조(24년 대비 +5.0%)

■ 독일 연방의회,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승인

- 연방상원, €460억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를 최종 승인. 해당 법안은 '29년 까지 시행될 예정이며, 클링베일 재무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강력한 투자 유인을 창출하고 고용을 보장하며 독일을 성장 궤도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

■ 유럽중앙은행(ECB), 추가 금리인하를 둘러싼 내부 이견 지속

- 슈나벨 집행이사,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%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기대도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, 현재 금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 금리인하를 위한 기준은 매우 높다고 언급
- 파네타 정책위원(이탈리아), 향후 수개월 간 유연한 통화정책 접근 방식 하에 매 회의마다 물가 전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강화한다면 금리인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

■ 캐나다 노동시장, 관세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 개선

- 연방통계청, 6월 고용자수가 8.3만명 증가(24.12월+9.1만명 이후 최대)하면서 실업률이 6.9%로 하락(5월 7.0%)했다고 발표.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파트타임(+7.0만명)에서 이루어졌으나 관세 위험에 노출된 제조업 부문에서도 고용이 증가

■ 영국 경제, 1분기 성장 호조 이후 2분기 부진 시사

- 통계청(ONS)이 발표한 5월 영국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-0.1%(Bloomberg 서베이 +0.1%)로 4월(-0.3%)에 이어 2개월 연속 역성장 기록. 서비스 부문이 증가(+0.1%)했으나 산업(-0.9%) · 건설(-0.6%) 산출량이 큰 폭 감소한 데 기인
- S&P Global Market Intelligence는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영국 정부의 성장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평가. 리브스 재무장관은 금번 수치는 실망스럽지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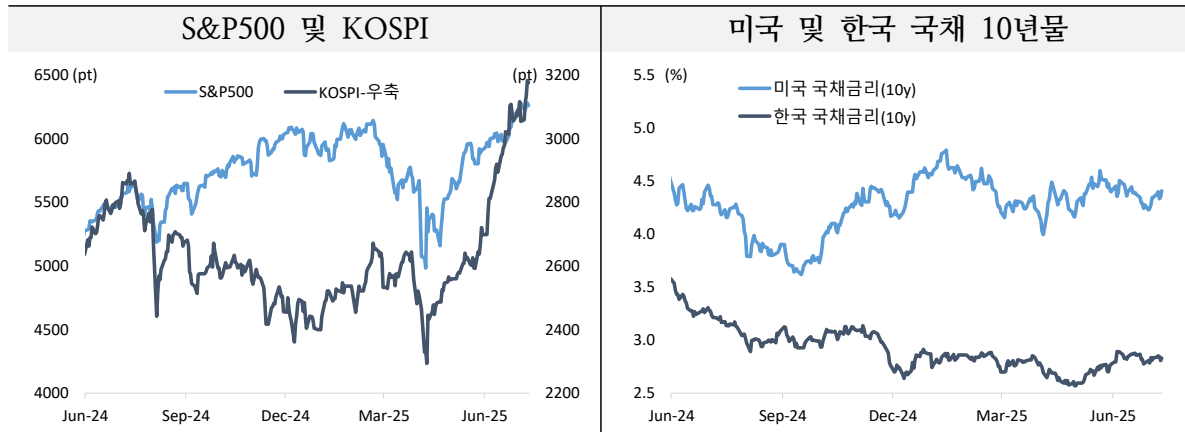
■ 브라질 정부, '25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

- 재무부, '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월(+2.4%)보다 소폭 높은 2.5%로 제시. 금번 전망에는 미국이 7.9일 예고한 50% 관세(8.1일~)를 반영하지 않았으나, 일부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면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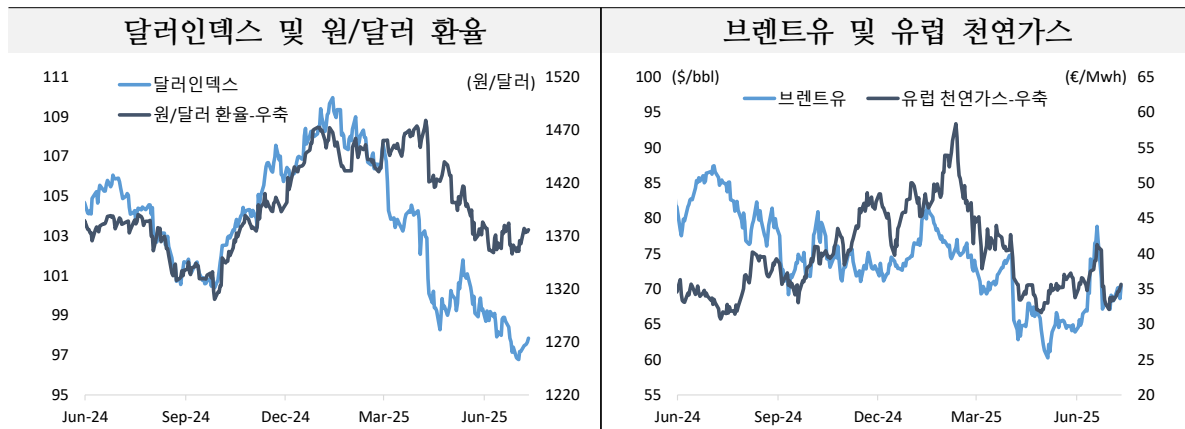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일본 5월 근원 기계수주(-1.5%_{mom}), 중국 6월 수출(+5.1%_{yoy}) · 수입(+1.8%_{yoy}), 인도 6월 소비자물가(+2.3%_{yoy}), 싱가포르 2분기 GDP(+3.5%_{yoy}, 이상 Bloomberg 서베이) 등 발표
- EU 통상장관 회의(미국 관세정책 논의), ECB 부이치치 정책위원(크로아티아) 연설 등(7.14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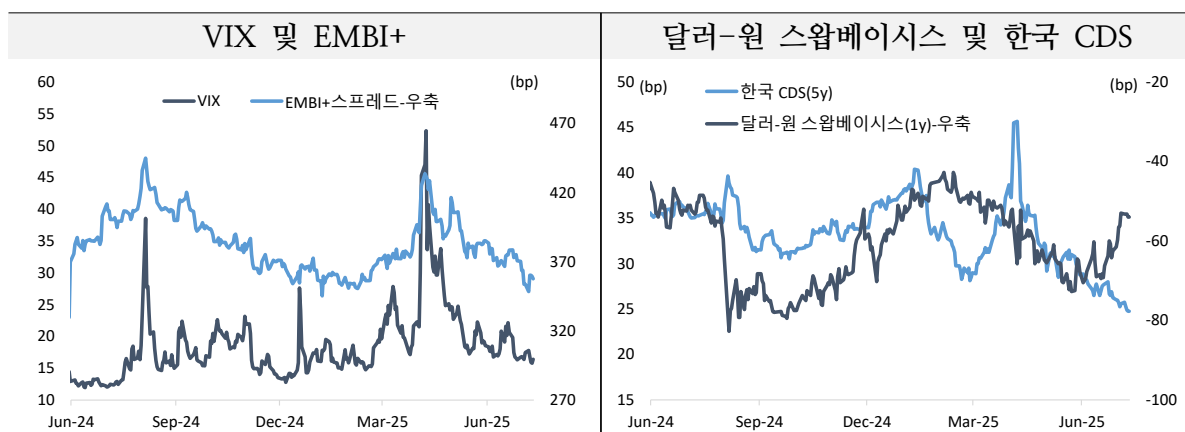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